

번역과 문화수용에 있어서의 시대, 사회적 맥락 -1930년대 동아시아 각국의 좌익문학운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수용을 중심으로-

최말순

1. 머리말

전통적으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되던 번역개념은 후기 구조주의로부터 시작된 각종 포스트 이론과 이의 영향아래 발전해 온 문화연구 및 후식민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인식론의 차원에서 언어의 자의성이 간파되고 이 기초에서 언어의 현실반영 성격과 투명성에 대한 회의가 일면서 의미의 등가성 차원에서의 번역은 불가능한 것으로까지 인식되었다.¹ 번역을 잡종화의 문화적 양상으로 보는 후식민주의 문화이론 역시 번역이 이질적인 문화들의 조화로운 만남의 장이 아니라 문화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각 문화들이 동일한 척도로 비교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하고 있다.²

번역개념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언어개념에 대한 변화³에서도

¹ 언어의 현실반영적 성격에 대한 회의로는 푸코(Michel Foucault)의 지식과 권력 간의 불가분 관계설이 대표적인데 이에 따라 언어가 다만 사회현실을 반영하기만 하고 현실을 재구조하는 주체적 작용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은 수정되었다. 언어의 투명성에 대한 회의로는 벤자민(Walter Benjamin)의 의견을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번역이란 결코 모종의 절대적으로 순수한 투명성과 명확한 가역성의 시야 내에서의 언어 간의 의의 전환문제가 아니며 원문과 역문이 서로 보충하여 단순한 복제보다 더욱 풍부한 의의를 창조해 낸다고 하였다. 나아가 劉禾(Lydia H. Lin)는 언어사이의 투명한 상호번역은 불가능하며, 각기 다른 언어의 단어 사이에서 성립하는 상상적인 대응관계는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위적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하였다.

² 대표적 후식민주의 문화이론가인 바바(Homi Bhabha)는 각 문화 간의 동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을 통해 각 문화가 동일한 척도로 비교될 수 없으며 따라서 번역을 통한 문화 간 차이의 공간과 잡종성, 간극성을 번역의 적극적 의의로 격상시켰다.

³ 언어와 지시대상과의 확인 불가능한 연결이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부터 기호들과의 차이작용에 의해 언어의 지시 의미가 생겨난다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지시대상을 삶의 문맥에서 파악하며 언어의 의미가 삶의 문맥 속에서 생성된다는

비롯되었지만 포스트모던이란 문화시대의 도래와 지구화로 일컬어지는 문화접촉과 문화이동의 일상화 시대에서 이종문화간의 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문화 간 접촉과 이동은 번역을 매개로 발생하기에 번역연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문화연구(culture studies)의 총아로서 새로운 연구와 시야의 확대를 기다리고 있다.

번역의 충실성을 주장하는 직역주의(literalism)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번역이 갖는 문화전환의 본질을 일컫는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연계한 번역연구의 탁월한 성과는 이미 많이 누적되어 있지만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하나는 번역으로서의 문화 혹은 번역의 일상화가 발생하는 문화번역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의 실제번역에서 생겨나는 문화의 처리문제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적 틀 역시 서로 중첩되고 같은 맥락에서 운위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번역이 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역사 등 여러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은 단순히 언어 간의 등가성이나 중립적인 언어전이의 문제가 아니며 각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시켜 파악해야 한다. 이때 원래 텍스트의 생산에서의 권력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이를 수용하는 문화의 권력관계, 즉 사회, 시대적 맥락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문은 이러한 번역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번역을 통한 담론수용의 개별적인 예를 찾아 그 시대, 사회적 맥락이 번역과 수용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본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주제는 1930년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있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의 번역과 수용을 둘러싼 논의인데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우선 프로문학의 명확한 목적의식과 실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과 수용에서의 초점이 분명하여 각국의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따른 비교이해가 용이한 점, 둘째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지시대상의 의미가 끊임없이 연기되는 미결정성으로 인해 언어의미 역시 끊임없이 연기된다는 데리다(Jacques Derrida)를 거치면서 언어와 지시대상 사이의 일대일 대응과 밀접한 연결 관계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받아왔다.

그 자체가 문학적 창작방법과 세계관에 관련된 것이어서 출발문화와 각 수용문화 내부의 조건과 사회맥락이 번역과 수용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강력한 국제성을 띤 프로문학의 성격 상 그 목적의식과 실천지향으로 말미암아 출발문화의 의도가 관철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달라진 수용문화의 반응이 의외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은 다만 하나의 시도로서 수용문화의 사회, 시대적 맥락이 번역을 통한 새로운 개념과 가치의 수입에서 행하는 역할을 개별적인 예를 통해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⁴

2.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제기와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전파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마르크스주의 문학운동의 창작 슬로건 중 하나로⁵ 1930 년대에 정식으로 채택되어 당시 사회주의 운동과 프로문학운동이 진행되던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었다.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제기 역시 당시 소련사회의 조건과 문인, 지배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이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제기는 소비에트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과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다. 당시는 적대적 계급의 타파, 제 1 차 5 개년 계획의 조기달성 등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적 영역과 노동자들의 일반적 의무교육, 문맹청산 등 문화적 영역에서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스탈린(Stalin)체제가 정비되어 가던 시점으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상태에 조응하는 새로운 투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혁명의 과정에서 상부구조인 문학이 하부구조에 역작용을 한다는 가정 하에 문학과 예술이

⁴ 이 주제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좌익문학의 범주 내에서 리얼리즘 문학론의 중요한 내용으로 연구되었던 것인데 본문에서는 소련에서 제출된 이 이론을 동아시아 각국이 어떠한 사회, 시대적 조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⁵ 문학을 포함한 예술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하는 좌익문학관은 그 반영의 방식과 창작방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름의 리얼리즘이 채택, 수정, 보완되어 왔다. 대표적 창작론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이 있다.

새로운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32년 소비에트 당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문학, 예술단체의 재조직이 시작되었고 그전까지 러시아문학의 주도이념이었던 「라프」(RAPF, 소련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의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이 부정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제창되었다. 이는 소련 사회주의 건설의 진전에 따른 문예조직의 재정비와 모든 작가를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할 필요성, 그리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문학의 방법으로 제기된 것이다. 1932년 고리키(Maksim Gorikii)를 의장으로 하여 개최된 작가동맹 조직위원회의 제1회 확대회의 이래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 1934년 8월 제1회 작가동맹 결성대회의 규약으로 확정되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 내용은 우선 「라프」의 조직과 이전까지 창작방법으로 적용되어 온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the dialectical materialist method in realism)이 지니고 있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기계적인 데서 오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방법을 반성하고 현실의 참모습을 형상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주창한 길포틴(Kirpotin), 그론스키(Gronsky) 등은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이 작가들에게 현실보다는 유물변증법을 중시하도록 만든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창작방법론으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제재나 수법, 양식 따위를 작가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작가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으로 파악되기 쉽다. 그러나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에는 과학과 예술을 하나로 하는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인간의 사회적 억압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살아있으나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에서는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배제하고 예술을 체제적인 정책과 결합시켜 전통이나 관습으로부터 인간의 의식을 전화하는데 힘쓰는 사회주의적 교육의 무기이며 동시에 문화혁명의 무기로 인식되었다.

⁶ 따라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창작론 사이에는 예술개념으로서 중대한 전환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되는 다음 항목에서 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사회적 사실주의는 생활현실을 그 혁명적 발전 속에서 정당히 묘사할 것을 전제로 한다. 혁명적 발전 속에서의 생활현실의 정당한 묘사는 생활현실의 합법칙성을 천명하고 새 것과 낡은 것의 투쟁에서 새 것의 불가극복적인 발전과 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생활현실을 역사적 구체성 속에서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현실표현의 진실성과 역사적 구체성으로써 근로대중을 사회주의적으로 교양하는 과업과 결합시킬 것을 작가들에게 요구한다. (김성수 243-244)

이처럼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당이 규정한 일종의 예술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성, 인민성, 계급성, 당파성 등의 특성을 핵심적 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은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의 도식성과 공식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사회주의 건설에의 작가동원이란 목적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었다. 이는 레닌(Vladimir Il'ich Lenin)미학의 기초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주장자들이 세계관과 예술적 형상 사이의 문제, 미래의 전망과 낭만주의 요소의 도입을 둘러싼 혁명적 낭만주의 문제, 전형과 개성 등 예술적 형상의 문제를 폭넓게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절에서 살펴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번역과 수용의 양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립배경과 기본성격을 요약해 보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제기는 사회주의 국가건설 추구라는 소련 특유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제기되었고 모든 작가와

⁶ 이러한 관점에서 셀던(R. Selden)은 당파성(Partnost), 민중성(Narodnost), 계급성(Klassovost)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 요건으로 파악하였다.

예술가의 사회동원이 그 기본 전제이며 이전의 창작방법이 현실의 비판에 주력한 반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성격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려는 창작론이다.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슬로건은 그 본질상 교육적 작용으로 보면 사회주의적이면서도 형식적으로 높은 예술적인 문학을 창조하려는 요구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진기 2000, 294)

3. 일본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 맥락과 논쟁

일본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최초 소개는 1933년 『프롤레타리아文學』 2월호에서 우에타(上田進)가 쓴 「소비에트 문학의 근황」이란 문장에서였다. 이 문장은 「1932년 10월의 소비에트 작가동맹 제 1회 조직위원회에 있어서의 보고」라는 부제로 그론스키, 킬포틴의 연설을 소개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문제, 세계관과 방법의 문제 등을 거론하였고 1934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문제』라는 단행본이 나오면서 러시아의 논의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임규찬 186)

이 문제가 대두되자 프로문인들은 수용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뉘어졌으며⁷ 학문적 관점과 정치 전략론적 관점을 아울러 논쟁이 진행되었다. 물론 수용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통일된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적인 판단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수용되는 맥락을 찾아보기 위해 도식화를 무릅쓰고 정리해보면, 수용반대파들은 그 이유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사회주의국가인 소비에트의 사회정세와 현실에 입각한 슬로건이며 이는 일본의 당시 정세와 다르다는 데 있었다.

예를 들어 도쿠나가(徳永直)는 사회주의국가 소비에트와 자본주의국가 일본이 각기 다른 사회구성과 대중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⁷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도쿠나가 수오(徳永直), 구보사카에(久保榮), 가미야마시게오(神山茂夫), 기시야마지(貴司山治), 이토우데이수케(伊藤貞助) 등이고 찬성하는 입장은 모리야마게이(森山啓), 나카노시게하루(中野重治), 미야모토유리코(宮本百合子) 등이 있다.

일본에 적용시킬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진기 1994, 577-590) 기사(貴司山治)는 소비에트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이 순조롭게 실현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현실 그 자체가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처럼 창작적 실천을 중시할 수가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작가들이 부르조아적 환경에서 끊임없는 이념적 투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치성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⁸, 이토우는 소비에트적 현실과 일본적 현실의 차이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⁹ 구보(久保榮)와 가미야마(神山茂夫) 역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비에트 예술의 기본적인 방법론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에 의해 풍부하게 된 특수한 이론으로 소비에트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없는 일본의 현실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¹⁰

이렇게 수용반대파들의 입장은 창작론보다는 정치운동의 전략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¹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배태한 소련의 사회적 조건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일본에 적용시킬 경우 일본 프로문학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무산계급혁명의 도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제기는 스탈린 독재체제의 정비와 사회주의 국가의 정상적 건설이란 소비에트의 사회, 시대적 조건이 그 주요 성립배경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비록 1900년대 초에 이미 사회주의 사조를 받아들여 20년대에는 사회주의운동과 조직적인 문학운동을 진행했지만¹² 사회주의

⁸ 貴司山治, 「創作方法의 問題」, 조진기, 앞의 책, pp.301-302에서 재인용.

⁹ 伊藤貞助,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인가? 기회주의적 리얼리즘인가?」, 조진기 편역, 앞의 책, pp. 621-633.

¹⁰ 久保榮, 「방황하는 리얼리즘」, 神山茂夫,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비판」, 조진기, 앞의 책, pp. 304-306.

¹¹ 물론 이들 문인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각기 창작론을 중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령 도쿠나가는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으로의 회귀를, 기시는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의 고수를, 그리고 이토우, 구보, 가미야마는 ‘혁명적 리얼리즘’ 혹은 ‘반자본주의 리얼리즘’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¹² 일본 프로문학운동은 그 前史로서의 민중문학론을 포함하면 明治시기까지 소급되며 「프로藝」, 「勞藝」, 「前藝」를 거쳐 「나프」, 「코프」등 조직적인 운동이 진행되었다.

리얼리즘의 수용이 논의되던 1930년대초는 만주사변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코프」(KOPF, 일본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 탄압시기로 동맹원들 사이에 많은 동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그때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구라하라(藏原惟人), 고바야시(小林多喜二), 미야모토(宮本顯治) 등이 투옥, 살해당했으며 사노마노부(佐野學), 나베야마데이신(鍋山貞親) 등의 전향성명이 1933년 6월에 발표되어 운동전체가 급속하게 붕괴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 프로문학운동의 제일 임무는 ‘정치적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일본 프로문학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성립되지 못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내용인 ‘미래에의 가능성과 전망’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1934년 2월 22일 「나프」(NAPF, 전일본 무산자 예술연맹)가 해체성명을 발표하게 됨으로써 집단적 성격을 잃게 되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현실의 객관적 묘사와 관련해 작가에게 부여된 자유는 집단적인 문학창조를 강요해 오던 「나프」를 부정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을 찬성하는 쪽은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관계 등 창작론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는데, 가령 모리야마(森山啓)는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을 일체의 이론적 규범을 거부하려고 하는 작가의 심정을 비평가의 입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수용하였으며¹³,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방법은 분리되지 않으며 도식적인 사고와 강제성을 배격하면서 유물변증법을 현실 속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⁴

또한 야마모토(宮本百合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성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운동을 국제적 규모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일관된 지도방침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의 폐단인 기계적 공식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으며,

¹³ 森山啓, 「창작방법에 관한 현재의 문제」, 조진기, 앞의 책, p.301.

¹⁴ 森山啓, 「창작방법과 예술가의 세계관」, 조진기 편역, 앞의 책, pp.591-608.

(宮本百合子 302-304)¹⁵ 나카노(中野重治)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의 안티테제로만 보는 구보와 가미야마의 의견을 비판하고 강한 세계관을 요구하는 작가의 실천적 노력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새로운 방법의 수용을 찬성하였다. (中野重治 315-318)¹⁶

이렇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둘러싼 일본 프로문학계의 찬반의견을 정리해 볼 때, 그 어느 쪽도 소비에트에서 원래 제기될 때의 출발 텍스트적 성격을 완전하고 투명하게 번역하여 수용하거나 반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대파들은 프로문학운동의 조직성 위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찬성파들은 경직화된 창작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 접수한 것이었다. 즉 동일한 이론의 도입과 적용을 두고 양자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취사하였고 이 과정에는 당시 일본 사회를 해석하고 전망하는 각기 다른 시각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어느 쪽도 원 텍스트의 핵심적인 본질, 즉 세계관의 문제나 작가의 실천적 방법으로서의 전형성, 살아있는 인간, 형상성의 창조 등의 문제를 간과하였는데 이러한 선택적 번역과 접수는 당시 일본 프로문학계가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이론의 공백상태에 있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을 구라하라, 고바야시 등의 예술이론과 조직론의 잘못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별도의 목적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역 실천과 관련하여 구보는 「방황하는 리얼리즘」이란 문장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넓은 의미의 사상으로서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¹⁷ 이는 그의 수용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¹⁵ 宮本百合子,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제에 대하여」, 조진기, 앞의 책, pp.302-304.

¹⁶ 中野重治,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제」, 조진기, 앞의 책, pp.315-318.

¹⁷ 주 12와 동일.

4. 한국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 맥락과 양상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번역과 도입이전에 이미 구라하라 같은 이론가에 의해 창작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은 프로문학론에 있어서 본격적인 창작방법론에 대한 논의로서 그 자체 내의 이론투쟁을 통해 다각도로 전개되었다. 1933년 백철(白鐵)의 「문예시평」을 통해 소개된 후 안막(安漠)의 적극적 수용주장이 개진되자 프로문학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안막, 한효(韓曉) 등의 찬성입장과 김남천(金南天), 안함광(安含光), 김두용(金斗鎔) 등의 반대입장으로 나뉘어져 논쟁이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논점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적용문제,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먼저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논리를 보여주는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탄생한 지역적 특수성과 조선의 특수성과의 질적 차이를 문제삼고 있다. 안함광은 자본주의 국가인 조선에서 사회주의는 관념적인 가능성인데 이러한 상황을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의 현실과 혼동하여 수용한다는 것은 조선의 특수상황을 배제한 추수론이라고 비판하였고,¹⁸ 김남천은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소련 내 형성배경이 「라프」의 조직개조와 결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카프」(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의 조직문제와 조선무산계급의 당면한 실천적 과제를 아울러 논의해야하므로 조직문제를 배제하고 창작방법만의 문제로 국한시켜 수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다.¹⁹ 이들의 의견은 원 텍스트의 성립배경과 다른 시대, 사회적 맥락이 수용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예이며 동시에 김남천의 경우에서 보듯이 수용하는 사회에 대한 분석과 목적의식에 따라 원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반대의견에 대해 이기영(李箕永)은 작가적 체험을 들어

¹⁸안함광, 「창작방법문제-신이론의 음미」, 조선중앙일보, 1934.6.17-30,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VI-카프 해산기의 창작방법논쟁』(태학사 1990), pp.248-264.

¹⁹ 김남천, 「창작방법에 있어서의 전환의 문제-추백의 제의를 중심으로」, 1934.3, 역사문제연구소, 『카프문학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4), p.103에서 재인용.

수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그 이유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과거 유물변증법적 방법이 갖고 있던 지나친 이데올로기의 강화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어²⁰ 그가 작가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선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효는 킬포틴의 견해를 근거로 적극적 수용을 표명하였는데 그 역시 세계관을 무시하고 창작방법으로서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이해하여 소비에트와 조선의 객관적 정세의 판이함에 상관없이 그 내용을 형상화하는 창작방법으로서 ‘진실’을 그린다는 데서 동일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²¹

이렇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기존의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번역되고 이해되는 것에 대해 김두용은 유물변증법이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방법인 이상 기존 창작방법론이 하등의 하자도 없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과거 창작방법상의 오류는 방법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작가의 실천에서 나타난 오류이기 때문에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조선의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²² 김두용의 주장은 예술을 체제적인 정책과 결합시키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수용자의 이해 수준이 원 텍스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예는 창작방법과 세계관의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일본과 비슷하게 수용의 당위성이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창작방법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지향하는 구체적 방법, 즉 혁명적 낭만주의 문제, 전망의 문제, 예술적 형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이해의 한계에도 기인하지만 당시 조선의 시대, 사회적 맥락이

²⁰이기영, 「창작방법 문제에 관하여」, 동아일보, 1934.5.30-6.5, 임규찬·한기형 편, 위의 책, pp.211-222.

²¹한효, 「신창작방법의 재인식을 위하여」, 조선중앙일보, 1935.7.23-27, 임규찬·한기형 편, 위의 책, pp.360-370.

²²김두용, 「창작방법의 문제-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 동아일보 1935.8.24-9.3; 「창작방법문제에 대하여 재론함」, 동아일보, 1935.11.6-29, 임규찬·한기형 편, 위의 책, pp.392-416; 417-461.

소련과 다르다는 인식과 논자마다 각기 다른 목적과 실천방향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1934, 1935 년은 이미 박영희(朴英熙)가 전향선언문을 발표했고 일제의 탄압에 의해 「카프」가 해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반대론자들은 바로 이점을 중시하여 찬성론자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조직의 파탄 및 우익적 전향의 구실로 삼아 자기합리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해, 수용여부는 「카프」내 전향과 비전향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당시 조선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둘러싼 논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여 상대측을 추수론자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 3 전선파나 「카프」 동경지부의 소장파들이 조선 내 프로문학운동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일찍부터 일본프로문학의 영향을 받아온 데다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논의하는 문장 다수가 일본 프로문인들의 문장을 번역 내지 번안했다는 지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령 김남천은 안막을 도쿠나가(徳永直)의 태도와 연결시켜 비판했고, 안함광도 안막의 글을 도무라(外村史郎)가 번역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제」의 단순한 내용소개에 불과하다고 공격했으며, 김두용은 한효의 문장이 모리야마(森山啓)의 견해와 가와구치(川口浩), 누마타(沼田英一)의 문장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해와 수용에 있어서 일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 연유가 단순히 조직적 프로문학운동의 쇠퇴라는 외연적 유사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대만의 프로문학운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번역소개

1920 년대 일본 식민지 처지에서 서구현대문화와의 접촉과 이에서 촉발된 신문화운동을 통해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대만 지식계는 동시기 일본, 한국, 중국과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프로문학운동을 진행하였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과 한국에서 「나프」와 「카프」로 대표되는

조직적인 프로문예운동이 성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프로문인들의 이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과는 달리 대만은 현대로의 진입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늦게 출발한 시간적인 차이와 복잡한 언어문제의 장애로 인해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조직적인 프로문단이 형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²³ 그러나 이 때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침략과 진일보한 식민지확장을 꾀하던 일본정부의 좌익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이 있었고 특히 식민지 대만에서는 좌익운동이 민족운동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좌익인사에 대한 대규모의 검거가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1931년 일본, 대만의 좌익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좌익문예단체인 「대만문예작가협회」가 성립되고 기관지 『대만문학』을 발행하면서 조직적인 운동에 들어갔지만 이듬해 바로 일본 식민당국의 진압을 받아 단체는 해산되고 잡지는 발행이 금지되어 조직적 운동이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 대만의 프로문학운동은 정치, 사회운동과 연계되지 못하고 문예지를 중심으로 한 좌우연합전선 형태의 순문학운동으로만 진행되었는데 때문에 좌익문학이론의 토론, 작품창작과 발표에도 자산계급진영과의 끊임없는 주도권 쟁탈전을 벌여야했다. 목적의식의 강조, 문예대중화 논의, 농민문학과 창작방법에 관한 토론 등 프로문학의 공통된 이론의 논의에 있어서도 좌익문단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거치면서 수용되고 심화되었던 한국, 일본에서와 달리 대만에서는 좌익문인의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의견개진으로 그쳤고, 자산계급 문인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론의 심화보다는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의 선취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창작방법을 위시한 좌익문학이론은 일본과 중국에서 들어온 것을 소개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창작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 문제 역시 문예대중화 논의 등 기타 이론과 뒤섞여 함께 논의되었기 때문에²⁴ 단독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제와 수용에 따른

²³ 대만최초의 좌익문학단체로는 1925년에 조직된 「台灣藝術研究會」가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崔末順, 〈現代性與台灣文學的發展〉(1920-1949) (國立政治大學中文系博士論文, 1994.1), p.115 참고.

²⁴ 대만의 경우 언어문제와 결부되어 台灣話文論爭과 鄉土文學論爭으로 발전하여

찬반의견 등 집중적인 토론은 없었고 대부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개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 소개와 수용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새로운 창작방법일 뿐 아니라 객관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雷石楡는 모순된 사회현상의 발생원인을 찾고 불합리한 결과를 쳐부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묘사할 때 낭만주의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그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雷石楡 : 1935a) 또한 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한 일본 프로문인 모리야마(森山啓)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리얼리즘론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혁명적 낭만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雷石楡 1935b) 郭天留 역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창작방법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는데(郭天留 1935) 그의 목적은 공식주의를 배격하고 현실에서 출발하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개념만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였을 뿐 대만문학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어 소개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대만의 대표적 좌익문인인 楊逵와 呂赫若은 직접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개념의 리얼리즘론을 보이고 있다. 楊逵는 주동성과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리얼리즘이라 할 수 없으며 진보적인 문학은 바로 이 두 요소를 가진 현실주의 문학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세계관이 구비되어있다면 작품창작의 제재가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에 구애될 필요 없이 지식분자, 중산계급의 생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楊逵 : 1935) 呂赫若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와 ‘어떻게 예술적으로 인식한 세계를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술적 진실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통일시키는 것이 오늘날 창작방법 논의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좌익문인들이 이 두 논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²⁵ 呂赫若, 「오래되고도 새로운 사물」, 《台灣文藝》 7.8 합간호, 林至潔, 《呂赫若小說全集》(聯合文學社, 1995), pp.555-559 에서 재인용.

이렇게 대만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소개 수준과 이의 적극적 수용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본, 한국에서 논의된 소비에트와 다른 자국의 사회조건, 혹은 문예조직의 문제 등과 결부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 조직적 문예운동이 완전히 궤멸되었으며 좌우연합의 형태로 문예지를 통해서만 논의되었고 창작문제 위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계급 문인들과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공식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수용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통해 프로문학이론을 수용한 것도 사회주의 리얼리즘 내용에 대한 편향적 이해의 요인이 되었다.

6. 중국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 맥락과 양상

혁명문학이라 불리는 중국의 좌익문학운동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여러 좌익문학단체와 많은 작가와 작품을 배출하며 오사(五四)이후 중국현대문단에서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30년대 초반 비록 일본의 만주국 건립과 동북지방에 대한 침략이 있었으나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과는 달리 좌익문학운동은 중국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기반을 확립하였는데 1930년 조직적인 좌익문학운동의 중심단체인 「좌련」(左聯, 좌익작가연맹)의 조직은 이런 상황을 잘 말해준다.

즉 좌익문예운동의 진전상황을 두고 볼 때 중국은 비록 30년대에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했으나 파시즘화해가는 정부의 진압을 받은 일본이나 그 식민지로 더욱 가혹한 탄압아래 놓여있었던 조선, 대만과는 달리 20년대 초기 조직된 중국공산당이 건재하고 있었고 중대한 국가적 사무에 국민당과의 합작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관계로 좌익문학이론의 토론이나 작품의 창작에 걸림돌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32년 소련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이 제기되자 곧바로 좌익잡지인 『文學月報』와 『文化月報』가 「라프」의 재조직 소식과 함께 문학이론과 비평의 움직임을 소개하였다. 또 1933년초에는 『藝術新聞』이 「蘇聯文學的新口號」라는 제하에 가장 먼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개하였으며 『國際每日文選』역시 킬포틴의 논문을 번역, 게재하였다.(趙

福生、杜運通 189) 그러나 이런 문장들은 개념의 소개에 그쳤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본격적인 논의는 킬포틴의 문장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周揚에게서 찾을 수 있다. 周揚은 예술의 창조에서 세계관과 창작방법은 나누어질 수 없으며 진실성을 기초로 한 예술의 특수성이 중요하다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해석하였다. 또한 전형적인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성격을 드러내어야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전 중, 운동 중인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의 본질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의 형이상학적, 기계적인 본질을 비판하고 이는 「라프」의 종파성이 문학비평활동에 반영된 것이라고 부정하였으며 낭만주의 요소의 도입가능성을 드러내었다. (周揚 1933)

周揚의 논의는 이론적으로 중국에 끼치고 있던 「라프」의 영향에 대한 비평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左聯」 초기의 좌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게다가 1934년 소비에트 제1차 작가대표회의에서 고리키, 킬포틴, 루나찰스키(Lunacharsky) 등 이론가의 보고와 발언이 있는 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창작방법으로 채택되자 곧 바로 중국좌익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중 가장 크게 주목받은 점은 바로 사회를 운동 중, 발전 중에 있는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할 것이라는 점과 전형성의 창조, 진실성과 세부묘사 등에 관한 언급이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에서 촉발된 전형의 문제는 30년대 중반 胡風과 周揚의 논쟁을 거치며 한 단계 높은 창작이론으로 정착되면서 실제로 중국현대소설 창작의 지도적 이론이 되었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주체’의 해석에 있어서 周揚은 사회, 계급적 당파성을 가진 이성화, 사회화된 존재를 일컫는데 비해 胡風은 욕망, 욕구, 감정, 열정과 생애의 의지를 가진 감성적 존재와 이성, 사회적 인소가 결합된 존재, 즉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주체에 대한 논쟁은 작가의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문예와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도 周揚은 정치를 정당, 정치공동체 등 구체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문학에 대한 ‘정치 우위성’을 주장한데 비해

胡風은 정치를 생활의 본질, 혹은 역사적 진실이란 층위로 파악하고 정치를 작가의 창작실천 그 자체로 인식하여 문학과 정치간의 관계가 바로 창작과 생활간의 관계와 같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러한 차이는 곧 제재문제와도 연결되는데, 周揚이 반제국적, 반봉건적이며 군벌과의 투쟁 등 당시 좌익문학의 중대한 제재를 그려야한다고 주장한데 비해 胡風은 예술의 성패는 무엇을 썼느냐 보다는 작가의 주관적 역량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제재결정론을 극력 반대하였다.²⁶

이런 차이에 근거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적인 문제인 ‘전형’ (典型)에 대해서 두 이론가는 노신(魯迅)의 ‘아 Q’ 를 예로 들어 각기 다른 해석을 내 놓았다. 胡風의 해석에 의하면 전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함하는데 이중 보편성은 그 인물이 속하는 사회 속에서 각 개체가 가진 공통성이고, 특수성은 다른 사회 혹은 다른 사회내의 각 개체와 다른 점이라고 하였다.(胡風 1935) 이에 비해 周揚은 보편성의 정의는 동의하나 특수성은 인물이 속하지 않은 다른 사회 내의 개체와 다른 점이 아니라 인물이 속하는 사회내의 다른 개체와 같지 않은 그 인물만의 특수함이라고 정의하였다. (周揚 1936)

이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周揚이 당의 목표와 좌익문학의 정치적 임무에 중점을 두고 장래 혁명의 승리를 문학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면, 胡風은 작가의 개별성과 인물의 개성을 중시하면서 이를 보편성에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의 전형 문제에 대한 논의는 중국 내 앵겔스(Friedrich Engels) 리얼리즘 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작가들에게 전형 창조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周揚과 胡風의 논의는 비록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지만 둘 다 마르크스주의 미학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더구나 이들은 동일하게 낭만주의 요소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에 대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긍정적 측면, 즉 공식화, 기계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²⁶ 周揚과 胡風의 논쟁내용에 관한 정리로는 黃曼君주편, 《中國近百年文學理論批評史(1895-1990)》(湖北教育出版社 1996), pp.560-573 을 참고할 수 있다.

드러내었다. 이는 당시 중국의 프로문단이 「左聯」의 좌편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수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중국 내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의에서는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와 다른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수용을 반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역시 중국의 수용맥락이 기타 국가와는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7. 맺는 말

지금까지 1930 년대초 소련에서 제기되었던 좌익문학의 중요한 창작론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문제를 둘러싼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의 프로문단의 반응양상을 외래문화가 번역되고 수용되는 사회, 시대적 맥락과 조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본문의 주요전제는 이론체계와 지식개념을 포함한 문화의 국가 간 유동이 번역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여기서번역은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의미의 등가적 전달이란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화유동의 매개로써 출발문화에 대한 취사선택과 모종의 목적성이 개입되는 문화현상임을 인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본문에서 고찰한 개별적인 실제예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20 세기의 사회주의 운동과 프로문학운동은 코민테른의 지도 하에 강력한 국제성을 띄고 전개되었다. 자본주의 제 모순을 비판하며 전세계 무산계급의 혁명쟁취를 최종목적으로 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이 사조는 19 세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면서 자본주의 현대화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동아시아 각국에도 급속히 파급되었는데 적극적인 서구모방으로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한 일본에서는 강력한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내부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좌익정치운동과 문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식민 자본주의의 병폐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한국과 대만에서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되면서 코민테른이 주장한 전세계 식민지의 독립추구라는 사회주의 투쟁목적을

받아들여 항일민족운동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었다. 또한 중국은 식민지로의 전략은 면했으나 서구열강과의 접촉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함으로써 자본주의 현대문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내부의 모순이 사회주의운동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공산당을 위시한 사회주의 정치운동과 마찬가지로 프로문학운동 역시 코민테른과 소련의 영향아래 놓여 있었는데 1930년대에 제기된 문학이론과 비평방법인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역시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었다. 그런데 수용과정에서 각국의 해석과 입장은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는데 여기서 바로 시대, 사회적 조건과 맥락이 문화이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발문화로서 소련에서 제기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라프」의 문예지도이념이었던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의 관념성, 공식성을 비판하고 제재의 선택과 선택된 제재의 배열에서 작가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전시기 창작방법에서 강조하던 유물변증법을 파기한 것은 아니며 다만 현실을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유물변증법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에서 출발하여 진실되게 그리되 현실을 발전 중인 것으로 파악하는 정확한 세계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기 작품이 현실의 부정면을 부각시켜 혁명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혁명이 성공한 당시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담아 창작의 분위기를 혁신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스탈린의 지도 하에 강력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문화혁명의 일환으로 전개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문인과 예술가를 사회주의 건설에 총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산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일본 프로문단에 번역되어 다양하게 논의되었는데 수용의 찬반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된 논쟁의 면모를 살펴보면 반대파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의 상황이 다르므로 작가에 대해 무산계급 헤게모니보다는 창작의 자유를 부여하는 일면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30년대 초반 만주사변을 계기로 군국주의를 추구하던 일본정부의 좌익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프로문인들의 체포가 속출하는 가운데

조직의 와해와 문인들의 전향이 가속화되던 당시 일본프로문단의 상황에서 사상적 해이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찬성파들은 프로작품의 천편일률적 성격을 쇄신하고 창작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강조하는 현실을 보는 정확한 세계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출발문화와 다른 사회적 조건과 의도하는 목적의 다름으로 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일본수용은 출발문화에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국 역시 30년대 「카프」의 해산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던 와중이었고 출발문화의 텍스트가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이므로 수용을 둘러싼 찬반의견이 기본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전에 구라하라 같은 이론가에 의해 좌익문학이론이 상당히 심도있게 전개되었던 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적인 내용인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관계에서도 구라하라의 리얼리즘론을 근거로 논의되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계기로 본격적인 창작이론을 개진하려는 의도가 강하였고 이를 대변하듯 형상성의 문제 등 창작론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대만의 경우는 식민당국의 감시와 탄압으로 조직적인 좌익문학운동이 일찍이 좌절되었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인해 정치운동 역시 좌절되면서 좌익지식인과 문인들이 문예지를 중심으로 좌우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활동하였던 바 자산계급과의 헤게모니 쟁탈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을 통해 들어온 좌익문학이론은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좌익문인들의 집단적인 논쟁이나 의견개진은 극히 적었다. 특히 복잡한 민족구성과 현대로의 진입 이전에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현대적 언어가 구비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문예대중화 논의를 빌어 오랜 기간 전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작이론과 비평론에 대한 토론이 적었던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은 앞서 본 세 나라와 다른 시대, 사회적 조건이었으므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해와 수용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라프」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던 「左聯」의 좌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적극적인 수용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周揚과 胡風의 논쟁

같은 창작이론과 비평방법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다.

상술한 정리에서 드러나듯이 소련에서 출발한 원 텍스트로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동아시아 각국의 사정과 시대, 사회적 조건과 맥락, 그리고 좌익문인들의 목적에 의해 다르게 번역되고 해석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국 내 좌익문학운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다. 본문은 30년대 동아시아 각국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번역과 수용양상을 비교하여 번역을 매개로 한 문화의 이동에서 도착문화의 시대, 사회적 맥락이 차지하는 역할과 작용, 그리고 이를 통해 출발, 도착문화 사이에 생겨나는 문화적 간극의 실제 예를 찾아보았다.

參考書目

<중국어>

(一) 專書

林至潔。《呂赫若小說全集》。台灣：聯合文學社，1995。

胡風。〈什麼是典型和類型？〉。轉引自傅東華編輯。《文學百題》。中國：上海生活書店，1935。

崔末順。《現代性與台灣文學的發展(1920-1949)》。台灣：政治大學中國文學系博士論文，1994。

黃曼君主編。《中國近百年文學理論批評史(1895-1990)》。中國：湖北教育出版社，1995。

趙福生、杜運通著。《從新潮到奔流--19-20世紀中國文學思潮史，第三卷》。中國：河南大學出版社，1992。

(二) 期刊

周揚。〈關於社會主義現實主義與革命的浪漫主義〉。《現代》4.1(1933)。

周揚。〈現實主義試論〉。《文學》6.1(1936)。

郭天留。〈創作方法的片斷感想〉。《台灣文藝》2.2(1935.2)。

雷石榆。〈我所希望的詩歌-批評4月號的詩〉。《台灣文藝》2.6(1935a)。轉引自《台灣文藝》。台中：東方文化書局影印本(1981)。

雷石榆。〈詩的創作問題〉。《台灣文藝》2.8-9(1935b)。轉引自《台灣文藝》。台中：東方文化書局影印本(1981)。

楊達。〈藝術是大眾的所有物〉。《台灣文藝》2.2(1935)。

<한국어>

김성수 편(1992), 『우리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사계절.

역사문제연구소(1994),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임규찬 · 한기형 편(1990), 「카프 해산기의 창작방법논쟁」, 『카프비평자료총서VI』, 태학사.

임규찬(1990), 『일본프로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사.

조진기 편역(1994),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론』, 태학사.

조진기(2000), 『한일 프로문학론의 비교연구』, 푸른사상.

번역과 문화수용에 있어서의 시대, 사회적 맥락 -1930년대 동아시아 각국의 좌익문학운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을 중심으로-

최말순*

한국어 요약

본문은 문화연구(culture studies)와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의 시각에서 1930년대 동아시아 각국(일본, 한국, 대만, 중국)이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을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수용하였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30년대초 소련에서 제기된 좌익문학의 세계관과 창작방법에 관한 이론으로 20세기 전세계의 사회주의 운동과 프로문학운동이 코민테른의 지도 하에 강력한 국제성을 띄고 전개된 시대적 배경하에서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었다.

모든 이론과 담론의 형성이 그러하듯이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제기된 데는 소련사회 자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 배경으로 작용했는데 스탈린(Stalin)체제의 공고화와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하던 소련에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문학예술의 지도원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원텍스트로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은 동아시아 각국의 시대, 사회적 조건과 맥락, 그리고 좌익문인들의 목적에 의해 다르게 번역되고 해석되었으며 나아가 자국내 좌익문학운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다.

본문은 이런 과정을 자세히 추적하여 번역을 매개로 한 문화의 이동에서 도착문화의 시대, 사회적 맥락이 차지하는 역할과 작용, 그리고 이를 통해 출발, 도착문화 사이에 문화적 간극이 발생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기한 것이다.

핵심어 : 사회주의 리얼리즘, 동아시아 좌익문학운동, 한국 프로문학운동, 일본 프로문학운동, 대만 좌익문학운동, 중국 좌익문학이론

* 국립중앙대학교 대만문학연구소 조교수